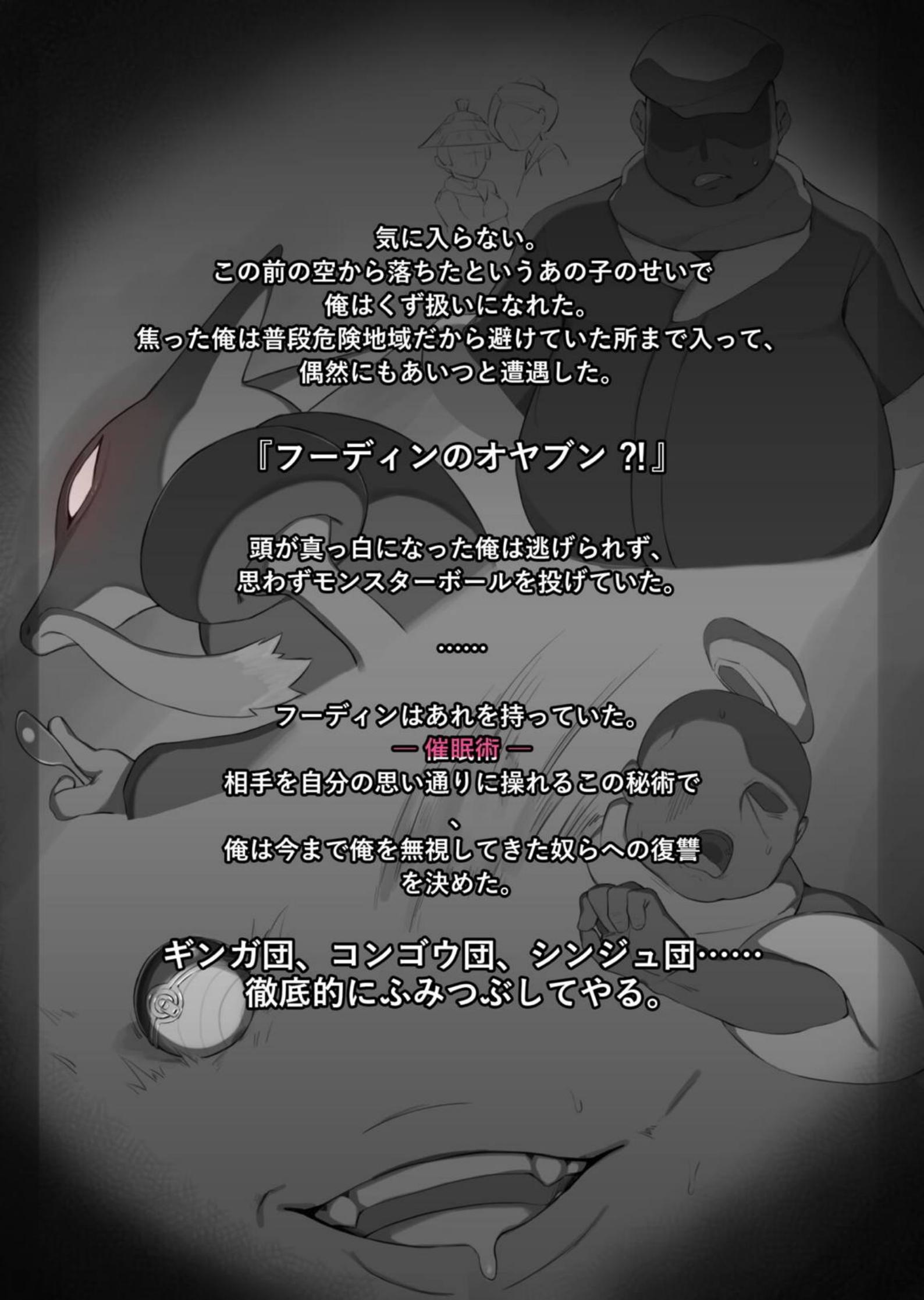


1 page gray scale
5 page color

ヒスイのメスアアナ





気に入らない。
この前の空から落ちたというあの子のせいで
俺はくず扱いになれた。

焦った俺は普段危険地域だから避けていた所まで入って、
偶然にもあいつと遭遇した。

『フーディンのオヤブン ?!』

頭が真っ白になった俺は逃げられず、
思わずモンスター・ボールを投げていた。

.....

フーディンはあれを持っていた。
—催眠術—
相手を自分の思い通りに操れるこの秘術で
俺は今まで俺を無視してきた奴らへの復讐
を決めた。

ギンガ団、コンゴウ団、シンジュ団……
徹底的にふみつぶしてやる。



歩き面倒だから、アヤシシに乗せてくれと言つたら
『死ねブタヤロ』
すごく怒られた。マジギレ

むかついたのでさらつて縛つた。
最近はかつとなることがたくさんあつたな…
ストレス解消で何回腹パンやつたら
『や…やめて…許してく…』

なんで？ 吐くまでずっとなぐつた

『くっそ生意氣が！ えらつそうに！
あんなにアヤシシが大事なら
お前を代わりに乗つてやる！』

数日間いじめてセツクスしたら、いつの間にか
目が死んでしまった。



『ねえ、あんた。
何でついてくるの？ 私に何か用？』

『ごもちろんあるとも。
もしかしてこの前ギンガ団で
手伝いに来たの覚えてない？』

『ああ、あの役に立たなかつたクズなんだ。
それでなに？』

『その時の恩返しがしたくてな。
特別にコイツをつれてきたよ』

「ハハハ 気に入つた？
じゃあ後で来るから楽しいお時間をWW」

「ウツー！ウツー！ウツー！？」

うつかり3日後にまた来たらすごいことになつてた。
それにしても、人間がポケモンのたまごを
産むこともできるんだ。ふし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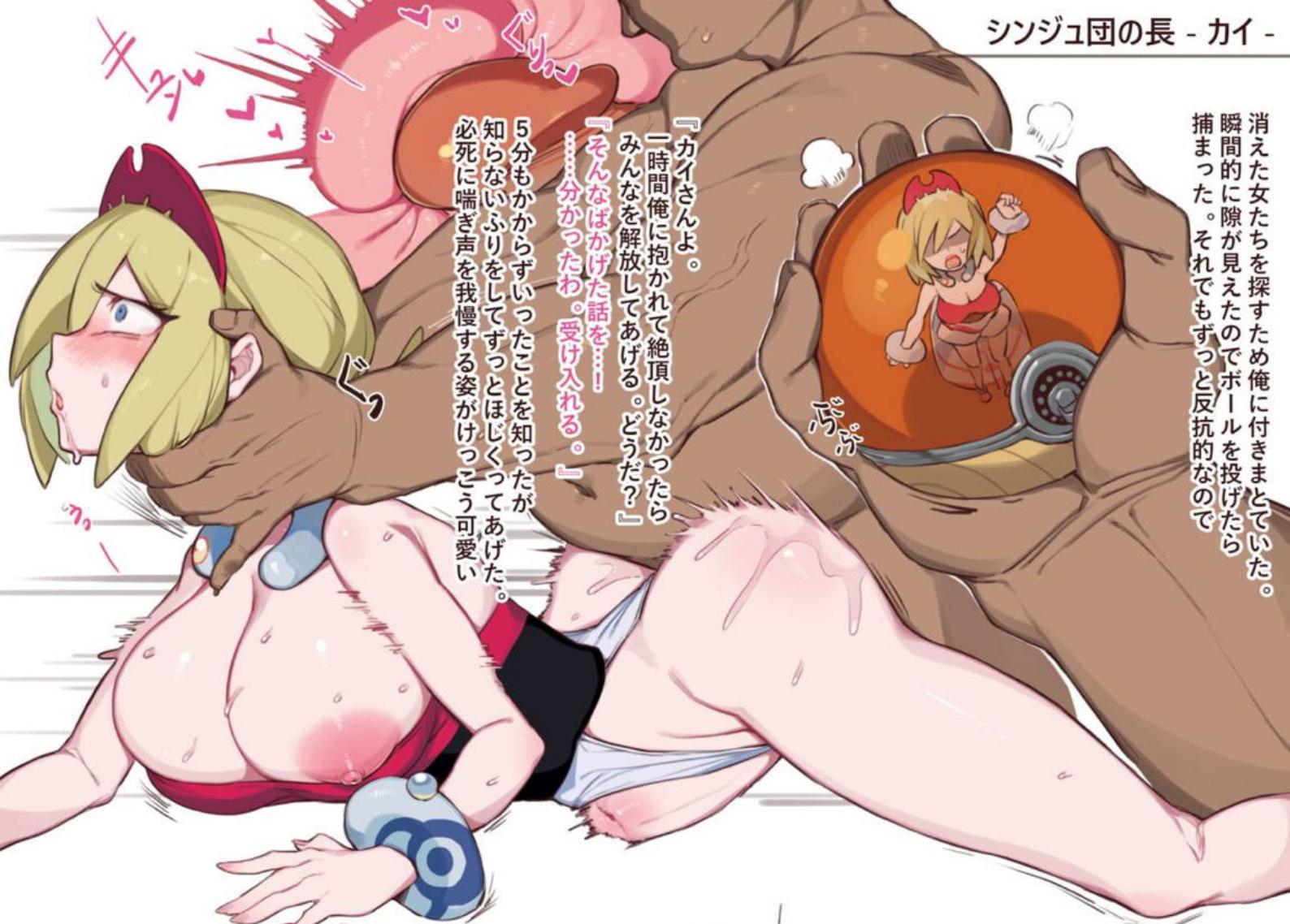
どろ

どろ

すすす

じゅじゅ

消えた女たちを探すため俺に付きまとっていた。瞬間に隙が見えたのでボールを投げたら捕まつた。それでもずっと反抗的なので





あ、いらっしゃいGさん。
さあ、現在この4つの穴は
調教完了しだ。
すごいでし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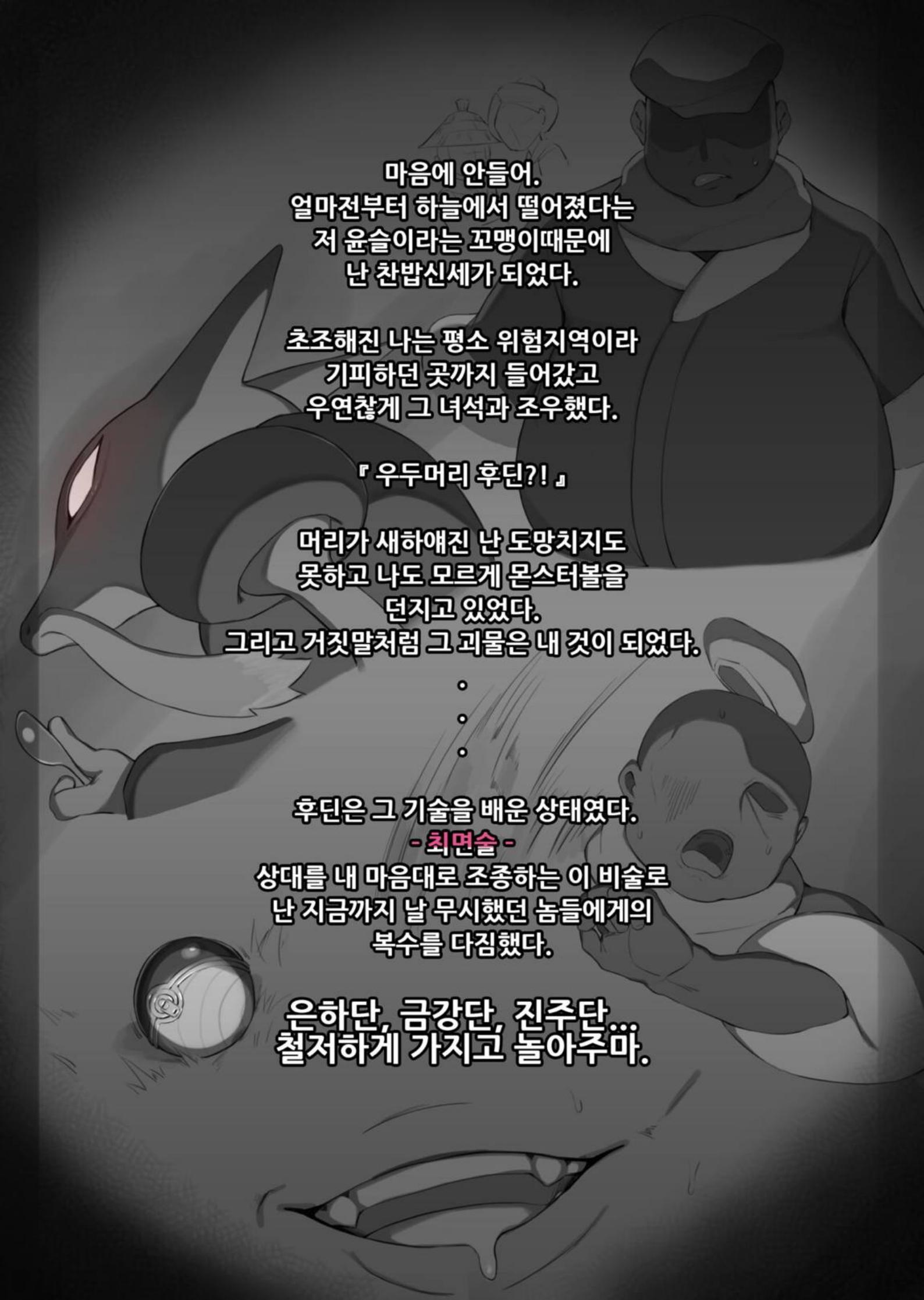
うん？これで終わりかって？
そんなはずないだろ

まだヨギトやガラナみたいなレアメスも
残つてゐるから、アメスも
さあ次はどんなやり方で調教してみようか
楽しみにみてくれwww

1 page gray scale
5 page color

히스이 암컷 구명





마음에 안들어.
얼마전부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저 윤슬이라는 꼬맹이 때문에
난 찬밥신세가 되었다.

초조해진 나는 평소 위험지역이라
기피하던 곳까지 들어갔고
우연찮게 그 녀석과 조우했다.

『우두머리 후딘?!』

머리가 새하얘진 난 도망치지도
못하고 나도 모르게 몬스터볼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괴물은 내 것이 되었다.

•
•
•

후딘은 그 기술을 배운 상태였다.

-최면술-

상태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이 비술로
난 지금까지 날 무시했던 놈들에게의
복수를 다짐했다.

은하단, 금강단, 진주단...
철저하게 가지고 놀아주마.

『이 포켓몬인데 어때?』

『애는 후딘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
어어라... 어지러워...』

『미안미안
처음본 포켓몬을
잡았는데 혹시
알려줄수있을까 해서』
『네.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선배시죠?
은하단의...』
『무슨
일이시죠..?』

??

G

『크크크 존나쉽네?』

『어이, 정신 차려봐
지금 뭐하고 있는건지
알겠냐?』

『후에? 머 하눈 고지...?
멀라... 기부느 조아♥...』

??

낑낑

♡

쯧쯧

『떡친 후에는 선배님의
자리를 청소해줘야지?』

『네에♥... 췄읍... 췄르읍♥♥』

쯧쯧

쯧쯧

존나 꼴받길래
납치해서 매달았다
최근엔 골치아픈
일이 참 많았지...
스트레스 해소겸으로
몇대 배빵 날렸더니
『그... 그만...
용서해주세요...』

내가 왜?
결국 토할때까지
계속 뻐다

걸어다니기 귀찮아서
신비록에 태워달라고
했더니
『꺼져 돼지새꺄』
오지게
욕먹었다.
어지간히 화가
난 모양

『씨발! 존나 건방진년이!
쟤도 아닌게 거만하게!
그렇게 신비록이
소중하면
니년을 대신 태주마!』

수일 간 계속
괴롭히면서 섹스했더니
어느샌가 눈이 죽어버렸다

『물론- 있고말고.

혹시 저번에 은화단 조사대로

도와주려 왔던거 기억안나?』

『아... 그때 그 도움 하나 안되던

병신이었구나? 그래서 뭐?』

『그 때의 보답을 해주려고 말이지...

특별히 이 녀석을 잡아왔지.』

우두머리 덩쿠림보 Lv.45

『저기 너.
왜 자꾸
따라오는거야?
나한테
볼일 있어?』

『하하 좋아죽네
그럼 나중에 올테니까
즐거운 시간보내 ㅋㅋ』

『읍! 응!! 웃?!』

깜빡하고 3일후에 다시 왔더니
굉장한 꼴이 되있었다.
그건 그렇고 인간이
포켓몬의 알을
낳을 수도 있구나.
신기해라

사라진 여자들을 찾기위해
날 미행하고 있었나보다
순간적으로 빈틈이
보이길래 볼을
던졌더니
잡혔다

그런데도 자꾸
반항하길래

『리더. 한 시간동안 내게
안겨서 절정하지 않는다면
모두를 풀어줄게. 어때?』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알았어. 받아들이겠어』

5분도 안걸려서 가는걸 알았지만
모르는척 계속 쑤셔줬다.
필사적으로 신음참는 모습이
꽤 귀여워서

목을 조르면서 박으니
보지조임이 더 좋아진다
평소 성격이 드세길래 S인줄
알았는데 M기질도 있나본대?

끝까지 항복 안해서
결국 실신시켰다

그냥 절대적으로 복종하는건
재미없으니 반항심은 가진 채
절대 날 배신하지 못하게
암시를 걸었다

아. 웃어? G씨
자, 현재
이 4마리의 구명들은
조교완료됐어
굉장하지?

응? 이게 끝이냐구?
그럴리가 있나

아직 코기토나 라나같은
레이어한 암컷도
남았으니까 말야

자 다음엔 어떤 방법으로
조교해볼까

기대해줘 크크

흐윽
정신차려...
제발...

궁금

END













